# 인구 36개월째 감소…10월까지 9만6천명 줄었다

## 만 3년간 사망자가 출생아 수 웃돌아

## 10월 출생아 2만658명 그쳐 역대 최소

우리나라 인구가 만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천13명(7.3%) 증가한 2만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천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5천879명에 달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21만2천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8천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기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

10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5천832건으로 1년 전보다 629건(4.1%) 증가했다.

다만 혼인 건수 자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이 대폭 감소한 탓에 올해 혼인이 소폭 늘긴 했지만, 전체 시기를 통틀어서 보면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혼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8건(-3.1%) 감소한 7천466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11월 인구 이동 48년만에 최소…23개월째 ↓

### 주택시장 침체 따른 이사 감소·고령화 등 영향

이사가 줄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은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11월 국내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0%(9만1천명)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74년 11월(39만4천명)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이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10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6만5천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15만7천건)보다 59%가량 급감했다.

인구 고령화도 인구 이동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3%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p)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3천842명), 인천(2천635명), 충남(1천769명) 등 9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6천405명), 부산(-1천26명), 대구(-667명) 등 8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됐다. /연합뉴스

**코스피 2,300선 붕괴** 코스피가 28일 배당락과 미국 나스닥지수 하락 영향을 받아 2% 넘게 급락하며 2,3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34포인트(2.24%) 내린 2,280.4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300선을 밑으로 내려간 것은 10월31일(종가 2,293.61)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 장기 무주택 中企근로자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배점 15점까지 확대

장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지침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이면 5점 배점을, 3년-6년 미만 3점, 6-9년 미만 6점, 9-12년 미만 9점, 12-15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5점 배점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 추천 유형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공고를 문자알리미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gwangju/main.do)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 광주시·지역기업 8개사 CES 첫 참가

###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14개 제품 전시

광주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인 'CES(미국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 2023'에 지역 기업 8개사를 이끌고 첫 출전한다.

'CES 2023'이 열리는 2023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을 운영,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스마트홈 기술이 구현된 가전·IT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과 황사·미세먼지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공기질 개선 욕구에 맞춘 공기청정기 제품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디케이의 벽걸이 공기청정기, ㈜벤텍프론티어의 공기청정기, ㈜쓰리에이치굿스의 원적외선 히터 무풍난풍기,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 ㈜아이콘의 살균건조기, 티아이피인터내셔날㈜의 차량용 공기정화기, ㈜현성오토텍의 인공지능 조리기 등 총 8개 기업 14개 제품이다.

특히 ㈜벤텍프론티어는 바이러스에 특화된 항균·항바이러스 공조 필터기술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KOKOS'를 선보이고, ㈜디케이는 공기 청정·살균 기능이 결합된 광촉매 살균기술이 적용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전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가전제품으로 주목된다.

㈜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IoT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비접촉 출입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 제품으로 노약자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기술제품이다.

CES 2023에 참가하는 공동브랜드는 광주시가 개발한 '지엘(GIEL)'이다. 지엘은 2018년 지역 중소가전제품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CES 전시장에 꾸민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KOREA'를 전면에 배치한 뒤 '광주 지엘(GIEL)'을 사용함으로써 도시이미지와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디자인 색상은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푸른색 계열을 사용했으며, 글로벌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 투데이 경제

### 전문건협 광주시회, 시설에 후원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인 월드비전, 애일의 집, 분도와 안나개미꽃동산, 영신원 등 6개소에 각각 2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병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해양에너지 봉사단 '광주시장상' 수상

㈜해양에너지는 자사 사회봉사단이 지난 27일 '2022년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에너지 사회봉사단은 광주를 비롯해 화순, 나주, 장성, 영광, 담양, 해남, 함평, 장흥 지역 내 아동·노인·장애 복지시설을 지원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료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희망 한걸음, 행복한 동행' 숲길·산책길 걷기 신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녹색갈증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양시원 기자

### 농어촌公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2022년 KRC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개최,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 소득 증대에 함께 노력한 협력업체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공사 사업에 참여해 청렴윤리·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동참한 협력업체를 격려하고 사업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는 동산콘크리트산업, 동우플라스틱, 동원프라스틱, 미래화학, 미르텍, 삼성조경, 성신파워텍, 성은종합철강, 주왕산업, 천지환경(가나다 순)이다. /기수희 기자